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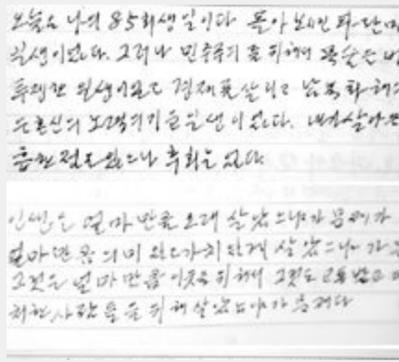
“하루 종일 아내와 지냈다... 둘이 있어 기쁘다”

■ DJ ‘마지막 일기’ 공개

“돌아보면 파란만장의 일생이었다.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생의 마지막에 쓴 일기가 공개됐다. 21일 김 전 대통령 측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제목으로 3만부를 제작해 전국 각 분향소에 배포한 DJ의 유훈 일기에는 말년에 느낀 삶에 대한 단상과 함께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시국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일기는 DJ가 2009년 1월1일부터 6월4일까지 친필로 간간히 써내려간 100일간의 일기 중 31일치다. 친필 메모 형식의 이 일기에는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견한 듯 85년간의 인생을 반추하는 대목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또 건강 문제와 평생 반려자였던 이희호 여사에 대한 애절한 감정과 설날에도 임금을 못받는 근로자에 대한 걱정,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빈소를 찾은 뒤 느꼈던 감동 등 인간적 면모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이와 함께 용산 화재참사 등에 대한 시국인식과 대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 비화도 포함됐다.

한편 DJ측이 이날 일기의 일부분만 공개하면서 미공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공개 부분에는 현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적 메시지와 함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인물평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J측은 시국인식 언급 부분 등이 공개되면 자칫 국장의 화합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개를 유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9년 1월 1일 새해를 축하하는 세배객이 많았다. 수백 명, 10시간 동안 세배 받았다.몹시 피곤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주력해야겠다. ‘한미예수 건강백세’를 빌겠다.

▲1월 6일 오늘은 나의 85회 생일이다. 돌아보면 파란만장의 일생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투쟁한 일생이었고, 경제를 살리고 남북 화해의 길을 여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일생이었다. 내가 살아온 길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

▲1월 7일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1월 11일 오늘은 날씨가 몹시 춥다. 그러나 일기는 화창하다. 점심 먹고 아내와 같이 한강변을 드라이브했다. 요즘 아내와의 사이는 우리 결혼 이래 최상이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아내 없이는 지금 내가 있기 어려웠지만 현재도 살기 힘들 것 같다. 둘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매일 매일 함께 같이 기도한다.

▲1월 15일 긴 인생이었다. 나는 일생을 예수의 놀린 자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교훈을 받고 살았다. 납치, 사형 언도, 투옥, 감시, 도청 등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역사와 국민을 믿고 살았다. 앞으로도 생이 있는 한 길을 갈 것이다.

▲1월 16일 역사상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만의 잘 대변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진실을 밝히거나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는다.

▲1월 17일 그제저 외신기자 클럽의 연설과 질의응답은 신문, 방송에서도 잘 보도되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크다. 여러 네티즌들의 ‘다시 한 번 대통령 해달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다시 보고 싶다. 답답하다. 슬프다’는 댓글을 볼 때 국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희망은 데까지 헌신, 노력하겠다.

▲1월 20일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난폭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인이 부상 입원했다. 참으로 아반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

▲1월 26일 오늘은 설날이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귀성길을 오고가고 있다. 날씨가 매우 추워 고생이 크고 사고도 자주 일어날 것 같다. 가난한 사람

들,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 주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설날이 큰 고통이다.

▲2월 7일 하루 종일 아내와 같이 집에서 지냈다. 둘이 있는 것이 기쁘다.

▲2월 17일 명동성당에 안치된 김수환 추기경의 시신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천국영생을 빌었다. 평소 얼굴 모습보다 더 맑은 얼굴 모습이었다. 역시 위대한 성직자의 사후 모습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다.

▲2월 20일 방한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출국 중 전용기 안에서 전화가 왔다. 그

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도 교육을 받고 또한 교육 받은 지식인이 노동자와 합류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4. 21세가 들어 전 국민이 지식을 갖게 되자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그 조짐을 말해주고 있다. ▲4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인척, 측근들이 줄지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 대통령도 사법처리 될 모양. 큰 불행이다. 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아당을 위해서도, 같은 진보진영 대통령이었던 나를 위해서도, 불행이다. 노 대통령이 잘 대우하기를 바란다.

것이 행복이고 건강도 관찮은 편이 행복이다. 생활에 특별한 고충이 없는 것이 옛날 청장년 때의 빈곤사대에 비하면 행복하다. 불행은 세자한 한이 없고, 행복을 세어도 한이 없다.

▲5월 18일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내한한 길에 나를 초청하여 만찬을 같이 했다. 언제나 다정한 친구다.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의 메모를 주었다. 힐러리 국무장관에 보낸 문서도 포함했다. 우리의 대화는 진지하고 유쾌했다.

▲5월 20일 경기도가 다시 힘들다. 집안에서조차 휠체어를 탈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좋은 아내가 건강하게 옆에 있다. 나를 도와주는 비서들이 성실성에 애쓰고 있다. 85세의 나이지만 세계가 잊지 않고 초청하고 찾아온다. 감사하고 보람 있는 생애다.

▲5월 23일 자고 나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보도. 슬프고 충격적이다. 그간 검찰이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노 대통령, 부인, 아들, 딸, 형, 조카사위 등 마치 소탕작전을 하듯 공격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수사기밀 발표가 금지된 법을 어겨버린 언론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등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다.

▲5월 25일 북의 2차 핵실험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도 아쉽다. 북의 기대와 달리 대북정책 발표를 질질 끌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주력하고 이란, 시리아, 러시아, 쿠바까지 관계개선 의사를 표시하면서 북한만 제의시켰다. 이러한 미숙함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강행하게 한 것 같다.

▲5월 29일 고 노 대통령 영결식에 아내와 같이 참석했다. 이번처럼 거국적인 예도는 일찍이 그 예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 현실에 대한 실망, 분노, 슬픔이 노 대통령의 그것과 견친 것 같다. 앞으로도 정부가 감압일변도로 나갔다가는 큰 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6월 2일 71년 국회의원 선거식 박 정권의 살해음모로 트러에 치어 다친 허벅지 관절이 매우 불편해서 김성은 박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일부생략)

오늘은 설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

투석 치료 4시간, 누워 있기가 힘들다...

는 전화로 1. 클린턴 대통령의 안부 2. 과거 자기 내외와 같이 있을 때의 좋았던 기억 3. 나의 재임시의 외환위기 수습과 북한 방문시 보여준 리더십 4. 다음 왔을 때는 꼭 직접 만나고 싶다 5. 남편 클린턴 대통령도 나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힐러리 여사가 뒷바에 전화한 것은 나의 핵발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에 대한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아무튼 클린턴 내외부의 배려와 우정에는 감사할 뿐이다.

▲3월 18일 투석치료, 혈액검사, X레이검사 결과 모두 양호. 신장을 안전하게 치료하는 발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리 힘이 약해져 조금 먼 거리도 걷기 힘들다. 인류의 역사는 맑은 시의 이른 같이 경제개발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헤게모니를 쥔 역사 같다. 1. 봉건시대는 농민은 무식하고 소수의 왕과 귀족 그리고 관리만이 지식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담당했다. 2. 자본주의 시대는 지식과 돈을 겸해서 가진 부르주아지가 패권을 장악하고 절대 다수의 노동자 농민은 피재배종이었다. 3. 산업사회

▲4월 24일 14년 만에 고향 방문. 선산에 가서 배례. 하의대리 덕봉서원 방문. 하의 초등학교 방문. 내가 3년간 배우던 곳이다. 어린이들의 활달하고 기쁨에 찬 태도에 감동했다. 하의도민의 환영의 열기가 너무도 대단하였다. 행복한 고향방문이었다.

▲4월 27일 투석치료, 4시간 누워 있기가 힘들다. 그러나 치료 덕분에 활동할 수 있는 것 크게 감사. 나는 많은 고생도 했지만 여러 가지 남다른 성공도 했다. 나이도 85세. 이 세상 바랄 것이 무엇이 없는가. 끝까지 건강 유지하여 지금의 3대 위기—민주주의 위기, 중소서민 경제위기, 남북문제 위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연과 노력을 하겠다.

▲5월 1일 이제 아름다운 꽃의 계절이자 혼풍의 계절이 왔다. 꽃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마당의 진달래와 연대 뒷동산의 진달래가 이미 졌다. 지금 우리 마당에는 영산홍과 철쭉꽃이 보기 좋게 피어 있다.

▲5월 2일 종일 집에서 독서, TV, 아내와의 대화로 소일. 조용하고 기분 좋은 5월의 초여름이다.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아내와 좋은 사이라는

시설

현안 공동추진으로 東西갈등 해소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동서화합을 위한 각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영호남 지역현안의 공동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대통령 서거이후 지역주의 해소가 우리사회 화두로 떠오른 것은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고른 인재 등용 등 지역주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정치 구호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영호남 지역의 현안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동서화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호남간에는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 수년전부터 지역정치인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100만

명 이상의 내륙도시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을 올 겨울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8일 대구·광주간 의료산업 발전 협약 체결에 따라 후속 협력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광주는 인근 환송과 의약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된 대구시와 원-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대구간 철도 건설과 새마을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영호남이 오랜 갈등을 털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영호남 현안의 공동 추진은 낙후된 지방의 발전은 물론 김 전 대통령의 유지(遺志)를 계승하는 길이기도 하다.

‘칠전팔기 나로호’ 성공발사 기원한다

지난 19일 예정시각을 7분56초 남기고 연료밸브 이상으로 발사가 연기됐던 나로호의 발사 일정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대로 발사 중지의 원인이었던 자동시퀀스내 압력 측정 관련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한 수정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나로호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나 발사가 연기됐다.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안은 나로호가 멋지게 비상하는 장면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은 말할 수 없이 컸다.

나로호 발사가 여러 차례 중지된 것은 우주개발의 길에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지를 잘 보여준다. 인공위성 발사는 작은 결함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무리하게 강행할 일이 아니다. 주도면밀한 준비와 철두철미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로호 발사는 준비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애초 한국-러시아 공동개발이라고 했던 1단 로켓이 실제로는 러시아가 단독으로 개발한 로켓 중지의 원인이었던 자동시퀀스내 압력 측정 관련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한 수정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주 개발은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다. 실패를 거울삼아 우주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에는 나로호가 성공리에 발사돼 자력으로 위상을 쏘아 올린 세계 열번째 국가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 “DJ 뜻 기려 민생·남북 현안도 진전율”

한나라당이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정상화, 남북현안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3일 영결식까지 구체적인 정국적인 논의 등 정치 일정을 자체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 고위급 조문단의 국회빈소 방문, 영결식 이후 정기국회 일정협의 등을 감안해 민생·남북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의회주의자였고 남북평화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부각

시키면서 고인의 뜻을 계승해 여야 대화,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애도묵념을 한 뒤 “고인은 의회주의자였고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 헌신했다”며 “민주당도 고인의 뜻을 받들어 국회로 돌아와 다음주 월요일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북한 고위급 조문단의 방문과 관련, 남북 당국간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靑전당 설계 자문위원 “원안에 5·18정신 보완해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에 대해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문위원 13명 가운데 7명이 별관 철거를 원안으로 하는 설계안에 5·18 정신 등 상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일 문화전당 설계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13명이 표명한 개인 의견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주시 공무원 1명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문화전당설계자문 위원회는 모두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 결과 위원 7명은 ‘문화전당 설계 원안+상징성 보완’, 4명은 ‘원 설계안 아니면

원형보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명은 최근 광주일보 등 지역 언론사의 여론 조사 결과대로 광주 시민의 의견을 따라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민 시의회 의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가 정부에 제시한 ‘5월의 문’과 ‘3분의 1 존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이달 31일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9월 중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각계 대표·시민 등 2만4천명 영결식 초청 사상최대

○~23일 오후 2시 국회 앞마당에서 거행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각계 대표와 시민 등 2만4천 명이 초청된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이재정 의정담당관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영결식은 장의위원과 외교사절, 시민 대표 등 정부가 선정한 인사 9천 명과 유가족 측이 추천한 인사 1만5천 명 등 총 2만4천 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청인사 이외의 국민은 경호·경비 문제 등 때문에 영결식에 참석할 수 없다.

이 담당관은 “유가족 측과 일반 국민의 참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장을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르려 초청인사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부는 김 전 대통령 측이 고려하는 서울광장 추모행사나 노제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21일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총 23만1천379명이 조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조문객은 서울 5만1천830명, 광주 3만2천615명, 전남 6만9천556명, 전북 1만8천13명, 경기 1만7천743명, 부산 6천435명, 대전 4천600명 등이다.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한 북한 조문단은 분항을 한 뒤 5~6초가량 고개를 숙여 묵념을 했다. 묵념을 할 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황희철 법무부 차관, 박지연 의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어 유족측으로 향한 북한 조문단은 박지연 의원의 안내로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홍길씨 등 유족은 물론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한병숙 전 총리 등 정치권 인사 수십명과 악수를 했다.

정 대표는 김 비서와 악수하며 “김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하셨다”고 하자 김 비서는 “예”라고만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 북측이 조선중앙통신으로 조의를 표해주시서 감사드린다”고 했지만 김 비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국회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Section titled '빛의만평' (Light's Man-Byeong) by Kim Jong-wo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in a suit and a woman, with the text '대한민국의 영원한 선생님으로...' (As the eternal teacher of the Republic of Korea...).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Columns includ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Editor-in-Chief, Publisher, Editor, Printer), 노설실장 (Editor-in-Chief), 편집국장 (Editor-in-Chief),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